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음란물 체험에 관한 연구

남영옥(南榮玉)*

송연주(宋娟株)**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음란물 체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연구 참여자 아동의 음란물 체험에 따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경험을 이해하여, 이들의 음란물 접촉 규제와 더불어 음란물 체험 피해를 감소시키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 중에서 음란물 접촉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아동 10명(남학생 6명, 여학생 4명)을 심층 면담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질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타인에 의해 음란물에 접촉하고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음란물을 보거나 혼자 숨어서 음란물에 접촉하고 있었다. 음란물 접촉 시에는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음란물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들은 음란물에 접촉하게 되면 대부분 계속 보게 되고, 점점 빠져들게 되면서, 음란물에서 빠져 나오기 싫지만 그럴 수 없어 힘들어하기도 하였으며, 음란물에서 본 대로 실현하고 싶어 했다. 음란물을 보다 스마트폰에 중독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다른 아동들의 음란물로 인한 성적 일탈 행동을 보며 음란물에 간접적으로도 노출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행동을 교사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있었으며, 음란물을 보는 자신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어른들과의 접촉점마저 대부분 끊어져 있었다. 이들은 음란물로 인해 미래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초등학생, 음란물, 현상학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

* 제 1저자, 부산 명장초등학교 교사

** 교신저자,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직과 조교수

I. 서론

최근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산업의 발달은 우리 사회 아동 및 청소년들의 성(性)적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커다란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다양해진 대중매체나 인터넷의 보급은 생활상의 간편함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저급문화나 허위정보, 노골적인 성지식이나 정보 등을 아무런 여과 없이 내보냄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들이 각종 음란물에 별다른 제한 없이 노출되어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과거에는 음란물을 음란 출판물이나 불법 성기구를 파는 노점상 등에서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인터넷이나 대중매체의 발달은 음란물 접촉이나 공유, 확산의 경로를 훨씬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점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미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Lo & Wei, 2005; Morrison, Bearden, Harriman, Mofrison, & Ellis, 2004; Peter & Valkenburg, 2006, 2009; To, Ngai, & Kan, 2012; Weber, Quiring, & Daschmann, 2012). 이에 더하여 최근 스마트 폰의 빠른 성장은 이전의 비디오표 컴퓨터를 사용할 때보다 인터넷 접속을 더욱 쉽게 만들면서 독립적이고 폐쇄된 공간에서도 음란물 시청을 가능하게 하여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오은선, 최진아, 2015; 이창훈, 김원기, 2015).

10대 청소년들의 음란물 체험에 대한 반응은 다양하다. 행정안전부의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2012)에 의하면, 성인물 이용 후 일부 청소년은 변태적인 장면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으며(16.5%), 이성친구가 성적 대상으로 보이게 되었고(7.9%), 성추행과 성폭행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5%). 또한 성인물 이용은 음란채팅, 야한 문자나 사진 전송, 몰래카메라 촬영, 음란한 유사 성행위 등의 부적절한 행동으로도 이어지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20%가 음란물에서 본 대로 따라하고 싶은 성일탈 현상을 나타냈다(행정안전부, 2012). 성에 대한 호기심이 강해지는 10대 청소년에게 요즘과 같은 미디어 시대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음란물이 미치는 가장 큰 문제는 성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음란물을 접하며 성에 대한 왜곡된 개념과 지식, 비정상적인 성의식을 가지게 되고, 성적 충동을 경험함으로써 잘못된 성관계를 가질 수 있으며, 성추행이나 성폭력, 강간과 같은 성범죄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은실, 김귀정, 김봉환, 2011; 김혜자, 심미정, 2014; 양소정, 2010; 오은선, 최진아, 2015; 이병환, 손미희, 2009; Peter & Valkenburg, 2006; Weber et al., 2012).

선행연구들은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많은 부정적인 폐해들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많을수록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와 행동을 나타냈고(백경신, 정승교, 2006; 최명일, 2009; Braun-Courville & Rojas, 2009), 음란 영상매체를 통해 성 메시지를 많이 접하게 될수록 성관계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조주영, 김영희, 2004; Peter &

Valkenburg, 2006; Wei, Lo, & Wu, 2010). 음란물에 많이 노출된 경우일수록 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흉내 내거나(김은실 외, 2011; Braun-Courville & Rojas, 2009), 성과 관련된 사회적 윤리나 도덕적 기준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지 않았으며(이정운, 이명화, 2003), 성이나 여성을 쾌락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도 높았다(김영혜, 이화자, 정향미, 2000; Peter & Valkenburg, 2009). 이는 청소년의 성적 관심이 점차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성적인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반면, 성 충동적인 욕구를 제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건전한 방향으로의 해결보다는 문제행동으로 표출될 위험이 높아서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혜자, 심미정, 2014).

음란물에 처음 접촉하게 되는 시기가 점차 저연령화 되면서, 초등학교의 음란물 접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김은실 등(2011)의 연구에서는 처음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하는 시기가 중학교 1~2학년 사이(47.7%), 초등학교 때(31.1%) 순으로 나타났으나, 김혜자와 심미정(201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 때(48.7%), 중학교 때(38.9%)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음란물 최초 접촉 시기를 살펴본 연구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음란물에 가장 많이 접촉하며, 음란물을 보고 난 후 부끄럽고 창피함, 죄책감, 내가 이상한건가 하는 생각 등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주로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오은선, 최진아, 2015; 차남현, 왕명자, 유경희, 김정아, 2007). 또한 초등학교 시기에 음란물에 노출되었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음란물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심재웅, 2010). 이들은 인터넷 검색 중에 우연히 음란물을 보게 되었거나, 호기심으로 자신이 직접 찾아서 보기도 하였지만, 또래를 통해 성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고 있었다(김정남, 우해자, 2001; 이창훈, 김원기, 2015). 청소년은 비행친구들과의 접촉이 증가할수록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음란물에 접촉하는 빈도가 증가하였으며(최정임, 정동훈, 2014),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음란물에 더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었다(Lo & Wei, 2005; Peter & Valkenburg, 2006; Ybarra & Mitchell, 2005).

초등학교의 음란물 접촉 경험은 성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성범죄는 그 동안 통계 분류 항목에도 없었던 것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2008년 한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남학생들이 음란물에서 본 대로 따라하는 놀이를 하다 저학년에게 성폭력을 가했고, 성폭력을 당한 저학년 학생들이 또 다시 또래나 하급생에게 대물림하는 끔직한 집단성폭행이 발생한 바 있다(뉴스포스트, 2008.05.09). 2014년에는 초등학교 3명이 같은 동네에 살던 23살 지적장애 2급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공사장으로 끌고 가 차례대로 성폭행 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 폰으로 음란물을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밝혀졌다(MBC NEWS, 2014.08.25.). 최근 한 초등학교는 같은 반 또래인 여학생 9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옷을 벗을 것을 강요하고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다(이슈타임 2015.10.17.). 이들은 음란물을 통해 배운 대로 어른이 하는 성관계를 그대로 자행한 것으로, 자신의 행동이 범죄

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성적 일탈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성추행이나 성폭력 충동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행정안전부, 2012). 이는 성적 호기심이 막 생성되고 빠른 사춘기를 경험하는 초등학생이 음란물을 통해 왜곡된 성지식을 습득하게 되면,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모방심리에 쉽게 휩쓸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정남, 우해자, 2001; 차남현 외, 2007). 즉, 이들은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 조절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아무런 의식 없이 영상에서 본 대로 따라하고 싶은 심리에 쉽게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성추행이나 성폭력 충동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음란물에 접촉하는 일부 청소년은 음란물 이용 후 음란물에 대한 내성과 금단현상을 보여 자칫 중독에 빠질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노안영, 박동진, 권명순, 2013; Cooper, Griffin-Shelley, Delmonico, & Mathy, 2001). 우리 사회 미디어의 광범위성과 대중성,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와 스마트 폰의 이용 확대 등을 고려해본다면 앞으로 초등학생의 음란물 접촉률 및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며, 음란물 접촉 시기 또한 더욱 낮아질 수 있다(차남현 외, 2007). 여기에 스마트 폰 하나만 있으면 게임, 웹툰, 동영상, SNS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폰 과다사용이라는 문제점까지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스마트 폰을 통한 초등학생의 음란물 접촉은 심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음란물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에서는 법적 규제와 등급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의 보급 등을 통해 음란물 금지 및 견제 활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공유 및 확대는 계속되고 있으며(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2005; Cooper et al., 2001), 스마트 폰 기기의 발달을 통해 음란물을 공유하고 확대하는 방법은 오히려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음란물 공해 속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양순옥, 김신정, 2004), 부모의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무지와 스마트 폰 기기 사용 미숙, 자녀에 대한 맹목적 믿음 등은 이와 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김혜자, 심미정, 2014). 초등학생의 음란물 접촉은 단순히 이 시기에만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시기 형성된 잘못된 성지식은 이후 성가치관의 혼란과 성 갈등을 겪게 하며, 나아가 개인의 인격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 접촉으로 인한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이다(차남현 외, 2007; Peter & Valkenburg, 2006). 따라서 음란물 폐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음란물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김정남, 우해자, 2001; 오은선, 최진아, 2015; 차남현 외, 2007), 주로 양적연구에 그치고 있어 아동이 음란물에 접촉하는 경로는 어떠한고, 음란물에 접촉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들은 아직까지 다뤄

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등학교 학생의 음란물 체험에 대해 살펴보는 경험적인 질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음란물 체험을 살펴봄으로써, 음란물을 경험하는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6학년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음란물에 최초 접촉하는 시기로 초등학교 5학년 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오은선, 최진아, 2015; 차남현 외, 2007), 최초 접촉 후 어느 정도 음란물을 경험했을 6학년 아동이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음란물을 경험하는 아동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독특하고 개별적인 경험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방법 중에서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대상자의 체험의 자각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아동이 처해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음란물 접촉 경험을 이해할 수 있어서이다(최창조, 한재희, 2010). 본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음란물 접촉 경험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봄으로 이들의 음란물 접촉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가 교사와 부모, 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육 당사자들에게 초등학교 학생의 음란물 접촉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이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음란물 접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음란물 접촉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음란물에 접촉하며 무엇을 경험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선행연구(오은선, 최진아, 2015; 차남현 외, 2007)를 통해 음란물 최초 접촉 후 어느 정도 음란물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6학년 아동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음란물 체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B시에 소재한 7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허락과 협조 하에 연구자와 친분이 없는 일반 아동 21명을 추천받았다. 선정한 7개 초등학교는 B시내 초등학교 가, 나, 다, 라 급지별 1~2개씩 학교를 선정하였는데, 급지란 부산시 교육청에서 교사의 전보를 위해 선정한 것으로 가 급지는 근무환경이 좋은 곳, 라 급지는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곳을 의미한다. 아동은 교사들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되었으며, 학부모 및 아동으로부터 모두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낸 경우에 한해서만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종 연구 대상

자는 추천받은 21명 중에서, 예비면접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음란물에 접촉한 적이 있고, 음란물 접촉에 대한 직, 간접적인 경험을 무리 없이 이야기할 의사가 있는 아동으로, 총 10명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첫 만남에서 음란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듯 말을 꺼리기도 하였으나, 면담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비교적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었다. 연구 참여자인 아동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지급되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주요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구분	성별	나이	학년	학교명
아동 1	남	13	6학년	ㄱ
아동 2	여	13	6학년	ㄱ
아동 3	남	13	6학년	ㄴ
아동 4	여	13	6학년	ㄴ
아동 5	여	13	6학년	ㄷ
아동 6	여	13	6학년	ㄷ
아동 7	남	13	6학년	ㄷ
아동 8	남	13	6학년	ㄷ
아동 9	남	13	6학년	ㄹ
아동10	남	13	6학년	ㄹ

2. 연구절차

연구자는 예비면접과정에서 연구의 주제, 목적, 인터뷰 내용, 녹음에 대해 아동에게 설명하고, 녹음된 내용의 관리와 폐기, 비밀보장에 대해 알려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인터뷰 하는 중이라도 그만 두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은 2014년 7월에서 2015년 2월까지 간헐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시간은 1회당 40~60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에 대한 풍부한 서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참여 아동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면담 질문의 내용은 ‘음란물을 본 적이 있는지’,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음란물을 보니 어떠했는지’, ‘음란물을 보고 난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이었다. 예비면접과정이나 1차면담에서 자연스럽게 아동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이야기를 듣던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 예를 들어 학교 내외에서 음란물을 본 아동들의 다양한 행동들과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듣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면담 질문 이외에 몇 가지 질문들을, 예를 들어, '음란물을 보는 친구들이 있는지', '음란물을 본 친구들이나 아이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떠한 음란물을 보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들을 재구성하여 2차면담에서 재 질문하였다. 면담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들을 중간 중간 진행하기도 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하였으며, 비언어적인 관찰내용(웃음, 억양 등)은 기록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Colaizzi의 연구방법에 절차에 의거하여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자가 녹음 파일을 전사한 후 자료를 반복해 읽어가면서, 본 연구의 현상을 포함하는 구나 문장으로부터 의미있는 진술을 찾아내어 참여자의 언어로 다시 진술 하였다. 둘째, 연구자는 유사한 진술들을 묶어 보다 분명한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재진술하였다. 셋째, 연구자는 앞서 재진술된 문장들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를 구성하였다. 넷째, 연구자는 주제를 모아 서 주제군을 진술하였다. 범주는 여러 개의 주제군을 내포하는 용어로 진술하였고, 연구자는 기술적인 언어로 진술하여 음란물 체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단계별 전후과정을 통해 수차례의 논의를 거치며 주제에 대한 편견이 들어가지 않으며 연구 대상자들의 경험적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구술 중 모호한 점이나 의문점이 생기면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하여 왜곡된 기술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신문기사나 출간된 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검증함으로써 연구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에 대한 검토는 질적 연구로 다수의 논문을 쓰고 상담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교수 1인으로부터 감수를 받으며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감수자는 경험구성 요소들이 적절하게 추출되고 기술되었는지 검토하고 의견을 주었으며, 연구자는 감수자의 의견을 토대로 수정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를 통해 52개의 구성의미와 16개의 주제, 그리고 7개의 주제군과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와 주제군, 범주는 <표 2>와 같다.

<표 2> 도출된 구성의미, 주제, 주제군, 범주

구성의미	주제	주제군	범주
SNS로 친구들이 준 동영상을 보게 됨 SNS로 친구가 웹사이트 주소를 퍼트려서 호기심에 들어 가 보게 됨 학원 등에서 형들이 사이트를 가르쳐줘서 들어가 봄 청소년단체 합숙이나 수학여행에서 친구들과로부터 들고 들 어가 보게 됨 밤에 아빠가 볼 때 뒤에서 같이 보게 됨	타인에 의해 음란물에 접촉하게 됨	음란물에 접촉하게 된 계기	
학교 밖(놀이터, 노래방, 멀티방 등)에서 친구들이랑 함께 봄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봄 집에 혼자 있을 때 봄 부모님이 계시면 밤에 문 닫고 몰래 봄 스마트 폰으로 검색하여 봄 부모님이 안 계시면 집에서 컴퓨터로 봄	친구들과 함께 음란물에 접촉함 혼자 숨어서 음란물에 접촉함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로 음란물에 접촉함	음란물에 접촉하게 된 경로	음란물에 접촉하는 방법
유튜브나 아프리카 티비 등에서 음란물(아동)을 봄(남) 인터넷에서 인터넷 소설이나 썸을 봄(여)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음란물에 차이가 있음	접촉하는 음란물의 종류	
친구들과의 대화에 끼기 위해 보게 됨 재미있고 호기심에 보게 됨 안 좋은 걸 알지만 참기 어려워 자주 보게 됨 더 야한 걸 볼수록 더 멋진 남자가 되니까 계속 보게 됨 음란물을 본 후로 자주 생각나 떨쳐버릴 수 없게 됨 음란물을 보면서 맘이 설레고 두근거리는 게 실제 상황처 럼 느껴져 더 빠져들게 됨 이성친구가 없어도 인터넷 소설이나 썸을 보면 대리만족 이 돼서 빠져있게 됨(여)	음란물을 계속 보게 됨 음란물 속에 빠져 있게 됨		
떨쳐버리고 싶어도 계속 머리에 남아 미칠 것 같음 자꾸 보다보니 음란물에 중독된 것 같아 너무 힘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성폭행을 하거나 임신을 하게 될지 도 모르겠지만 음란물을 끊는 것이 더 힘들 음란물 본 것 자체가 너무 후회 됨	음란물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음	음란물을 체험으로 인한 경험	음란물 체험에 따른 반응
여자 애들을 자주 집적거리게 됨 신체적 접촉을 하고 싶어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음 이성친구와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신체적 접촉을 함 중학생이 되면 음란물에서 본 대로 행동하게 될 것 같음	음란물에서 본 대로 실현하고자 함		
스마트 폰에 중독된 것 같음 스마트 폰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음 스마트 폰을 끊어야 할 것 같지만 끊지 못하겠음	음란물을 보다 스마트 폰에 중독됨		

구성의미	주제	주제군	범주
야동 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함 야한 이야기를 하고서 자기네들끼리 눈짓하며 웃음 아이들이 뭘 말인지도 모르는 야한 말을 하고 다님 신음소리나 성 일탈 행동을 함 교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야동을 봄 야한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함 자위행위를 함	음란물을 본 아이들의 말이나 행동이 변화 됨	음란물을 체험하며 나타나는 아이들의 행동 변화	
동성에 행위를 함 게임으로 성적인 놀이를 함 이성친구와 신체적 접촉을 함	아이들이 음란물에서 본 대로 행동하는 것을 경험함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화를 말하지 않음	음란물 체험을 자신들만의 비밀로 공유함		
부모님은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심 선생님들은 우리가 음란물을 보는 걸 모르고 계심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한 선생님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함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이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음 자신들은 어른들이 못 보게 해도 보는 방법을 다 찾아냄 이게 다 호기심에 들어가서 보게 만든 어른들의 탓으로 돌리며 속상해 함	어른들에 대한 불신으로 어른들과의 접촉점이 끊어짐	음란물로 인해 아동들만의 비밀스런 결합이 형성됨	음란물 체험 후 나타나는 현상
이런 식이라면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로 학교 가 이상해지는 것 같음 앞으로는 길을 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청소년 성범죄나 성 폭행, 성추행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음	음란물로 인해 미래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됨	음란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함	
음란물 사이트를 없애거나 법이 강화되면 좋겠음 지금보다 이른 시기에 음란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함	음란물에 대한 규제나 교육이 필요함		

1. 음란물 접촉 방법

첫 번째 범주는 아동이 음란물에 접촉하게 되는 계기와 경로 및 이들이 접촉하는 음란물의 종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범주를 '음란물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명명하였다.

1) 음란물에 접촉하게 된 계기

가. 타인에 의해 음란물에 접촉하게 됨

본 연구 참여자들이 음란물에 접촉하게 된 계기는 누군가에 의해 음란물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서 부터였다. 이들은 친구들로부터 카카오톡과 같은 SNS로 동영상이나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받아 우연히 클릭했다가 보게 되었다고 하면서, 친구들로부터 단체 카톡방에 동영상이나 주소가 오면 거절하고 나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순수한 아이들 빼고는 거의 다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타인에 의해 알게 된 특성 사이트나 주소, 예를 들어 학원이나 체육관, 보이스카웃 단체 합숙 등에서 형이나 친구로부터 사이트 주소를 듣고 그 사이트를 찾아가 음란물을 보기도 했고, 수학여행에서 한 친구가 스마트폰을 교사에게 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그걸로 다른 친구들과 밤새 같이 보게 되면서 모르는 아이들도 그 때 다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밤에 아빠가 보는 걸 뒤에서 우연히 보게 되면서 음란물에 처음 접촉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명절에 친척 집에 갔다가 사촌 형이나 오빠에게서 음란물에 대해 처음으로 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SNS로 애들이 동영상을 보내거나, www로 시작하는 사이트 주소를 외워뒀다가 이거 봐봐 하고 보내면은 호기심 있는 애들은 다 보거든요. 모범생들도 다 봐요.” (아동10)

“아빠가 볼 때, 아빠들 대부분 다 본다던데요. 대부분 야동, 보는 시작이죠, 아빠가 볼 때 뒤에서 소리 듣고 일어나서 몰래 보고, 제 친구도 잠이 깨가지고 아빠가 노트북으로 뭘 하고 있었는데 그걸 봤다고.” (아동1)

2) 음란물에 접촉하게 된 경로

가. 친구들과 함께 음란물에 접촉함

참여자들은 학교 스탠드나 뒤뜰, 주차장, 놀이터 등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보고 있었다. 친구들과 집이나 학교 건물 앞 계단, 아파트 놀이터, 노래방, 멀티방 등에 가서 함께 보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주로 와이파이기가 되는 곳을 선호하였다.

“애들끼리 스마트폰으로 대놓고 봐요. 주로 와이파이기가 터지는 곳이면 더 좋긴 한데, 아파트 놀이터나 학교 스탠드 같은 데서도 봐요.” (아동3)

나. 혼자 숨어서 음란물에 접촉함

참여자들은 남들 모르게 혼자 숨어서 음란물에 접촉하기도 하였다. 집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

거나 혼자 있을 때 컴퓨터나 스마트 폰으로 음란물에 접촉하고 있었고, 부모님이 계신 밤이면 문을 닫고 이불 밑에서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몰래 본다 고 하였다. 형이나 동생과 함께 음란물을 본다고 말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이들은 아무래도 부모님이 일찍 오시거나 집에 계시면 음란물을 보더라도 조심스럽게 보기 때문에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이 야동을 더 많이 보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부모가 집에 있건 있지 않건 간에 음란물에 접촉하고 있으며, 자녀의 음란물 접촉에 대해 부모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불 밑에서 보면 엄마는 자는 줄 알아요. 아니면 엄마는 게임 하는 줄 알고요. 우리가 야동 보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해요.” (아동7)

다.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로 음란물에 접촉 함

참여자들은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로 음란물을 접하고 있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컴퓨터로 음란물을 본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스마트 폰이 흔적이 남지 않고,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지정해 놓아 부모님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스마트 폰에서 우리는 엄마도 친구로 받아주지도 않고 비밀을 다 걸어놓았어요. 폰도 비밀을 걸어놓고 카카오톡은 카톡 대로 따로 걸어놓고, 카카오톡도 또 따로 걸어놓고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친구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컴퓨터 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해요.” (아동4)

3) 접촉하는 음란물의 종류

가.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음란물에 차이가 있음

참여자들의 음란물 선호도에는 성차가 있었다. 남학생들은 스마트 폰으로 게임보다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등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는 반면, 여학생들은 인터넷에서 ‘네이버’ 등에서 인터넷 소설이나 웹툰을, 카카오톡에서 썸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 소설은 주제에 따라 불리는 용어도 달라지는데, 특히 ‘엄빠주의(엄마, 아빠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라는 메시지가 붙은 다소 농도 짙은 수준의 애정묘사가 담긴 것도 있어, 초등학교 학생들이 성인소설에 가까울 정도의 짙은 성묘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과정에서 남학생 참여자들은 부끄러워하며 연구자에게도 스마트 폰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솔직하게 연구자에게 사이트를 찾아주며 접촉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는 여학생들이 자기가 보는 것이 재미있고, 이런 성적인 경험이 소설 속에서 간접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

이 없으며, 정당하다고까지 느끼고 이를 즐기는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여자가 야동 보면 이상한 애예요. 개 왕따 당하고 완전 또라이... 여자애들은 인소나 UC 노벨, 웹툰 같은 거 봐요. 그 내용 중에 초등학생이 아저씨랑 사귀고 막 키스도 몇 번 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제 이름을 치면 제가 주인공으로 짝 바뀌는 소설이 되요. 정말 흥분 되요.” (아동4)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터넷 소설 추천이라고 하면 나오는 제목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서 쳐요. 아니면 그냥 네이버에 인소해도 나와요. 그냥 인소만 쳐도 쪽 내리면 제목들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 블로그 같은데 다운받을 목록이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루에 막 몇 개씩 보고. 이런 식으로. 제일 유명한 작가가 백원인데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쁜 남자가 끌리는 이유’. ‘잘난척하는 그 입술에 키스를’, ‘자 어디서부터 키스해줄까?’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어요. 카카오토리에 썰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설 같은 판타지예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 읽진 않고, 재밌어 보이는 건만 골라 읽어요.” (아동6)

2. 음란물 체험에 따른 반응

두 번째 범주는 아동이 음란물을 체험함으로써 인해 경험하거나 나타내는 반응에 해당한다. 이 범주에는 음란물을 체험하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들과 음란물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아이들의 공개적인 행동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범주명을 ‘음란물 체험에 따른 반응’으로 지칭하였다.

1) 음란물 체험으로 인한 경험

가. 음란물을 계속 보게 됨

참여자들은 음란물을 한 번 보게 되면 호기심에 계속 보고 싶고, 더 보고 싶어서 또 보게 된다고 하였다. 야한 동영상을 주로 보는 남학생들은 대부분 음란물이 나쁜 것인지 알지만 참기도 어렵고 끊기도 어려워 계속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반면, 인터넷 소설을 주로 읽는 여학생들은 인터넷 소설이 나쁜 것이라는 인식보다 재미있어서 계속 보게 된다고 하였다. 음란물을 보지 않으면 친구들과 사이에서 혼자 병어리가 될 것 같아 보게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 여학생 참여자는 남학생의 경우 더 야한 걸 보고 말할수록 더 멋진 아이가 된다고 하였다.

“저는 한 번 봤는데요, 떨쳐내고 싶은데 계속 머릿속에 남구요,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생각이 또 나고, 그래서...” (아동8)

나. 음란물 속에 빠져있게 됨

참여자들은 음란물에 단 한 번 접촉했을 뿐인데 계속해서 빠져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음란물을 보게 되면서부터는 공부나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조금 봤는데도 그 생각이 너무 머리에 남아 집중이 안 되고, 떨쳐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미칠 것 같다고 하였다. 음란물을 보면 뭔가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맘이 막 설레고, 두근두근 거리거나 쿵닥쿵닥 거린다고 표현하였으며, 완전 미친다고도 하였다. 여학생 참여자들은 소설 속의 이야기를 통해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하면서, 주위에 커플이 다정하게 지나가는걸 보면 너무 화가 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여학생들이 주로 보는 ‘썰’은 자신들이 소설을 만들어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특정 사이트(예. UC노벨)에서는 소설 속 주인공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면 자신이 그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 남자 주인공과 연애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다. 즉, 내 이름으로 내용이 전개되면서 실제 상황처럼 흥분감을 느껴 더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야한 동영상 보는 시간보다 여학생이 인터넷 소설에 빠져 있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딱 2분 봤는데, 그날부터 잠이 안 오구요, 계속 생각나서. 이제는 생각 안하려고 하면 또 나고. 계속 그 장면이 돌고, 그걸 안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렇게 1년 됐어요.” (아동7)

“인소 중에는 연예인을 접목시켜 가지고 초등학교생들이 사귀는 게 나와요. 사귀는 게 아닌 인소는 하나도 없어요. 사귀거나 안겨있고, 정략결혼 그런 거도 있고, 신체접촉도 막 나와요, 손잡고 안거나, 너무 재밌어요. 대리만족이랄까요. 가슴도 두근두근 뛰고 보면 너무 설레죠. 나도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럼 좋겠다. 그러고. 대놓고 애정행각하는 거 진짜 싫어요. 우리 동생이 나보다 먼저 남친 만들 까봐, 그거 생각하면 진짜 빠쳐요. 아씨 이러면서. 중학생 손잡고 가는 거 보면 욕은 할 수 없는데, 속은 부글부글부글! 아오!” (아동6)

다. 음란물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음

음란물에 접촉한 것을 후회하며 빠져 나오기 싫어 하는 참여자들도 있었으나, 음란물을 끊는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하였다. 이들은 떨쳐버리고 싶고,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밖에 없어 너무 힘들다고 하였다. 참여자들 중 일부 남학생은 중학교 졸업할 때가 되면 일을 저지르거나, 이대로 가다간 자신이 성폭행을 저지를 것 같다고 하였으며, 임신을 걱정하기도 하였다. 자신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음란물에서 본 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계속 보니까 자꾸 그게 생각나고, 나도 빨리 하고 싶고, 문제긴 한데, 너무 하고 싶어요. 하고 싶

은걸 어떡해요. 제 생각엔 중학교 2학년 때 짬 되면 그런 행동을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나면 얘기를 낳을 수도 있겠죠? 임신하면 어떡하죠?” (아동8)

라. 음란물에서 본 대로 실현하고자 함

참여자들은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 자신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며, 이런 마음을 참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성친구가 있는 참여자들은 이성친구와 사람이 없는 장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안 계신 집, 인적이 드문 집 앞 놀이터나 골목, 멀티방, 노래방 등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었다. 이성친구가 없는 참여자들은 음란물에서 본 대로 하고 싶어서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하였다. 여학생 참여자들의 경우 대부분 이성교제는 남학생이 먼저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교제 신청을 먼저 할 수 있는 남학생이 부럽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6학년 남학생들이 콘돔을 사는 것을 봤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계속 그런 짓 해볼까?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자애들한테 자꾸 집적되게 되요” (아동7)

“가능하면 부모님이 안 계실 때를 기다려요. 그 때 사귀는 여친 집에 불러서, 게임도 하고, 안기도 하고..” (아동3)

마. 음란물을 보다 스마트 폰에 중독됨

참여자들은 음란물을 보다보니 스마트 폰에 중독된 것 같다고 하였다. 음란물을 본 것이 후회되고, 학교 오면 호기심에 책이 눈에 안 들어올 지경으로 자꾸만 스마트 폰만 보게 되며, 음란물을 끊어야 하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스마트 폰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스마트 폰이 없다면 자신은 죽을 것 같거나, 자살할 것이라는 하거나, 만약 엄마가 스마트 폰을 뺏는다면 가출할 것이라고도 하였다.

“스마트 폰이 안 좋은 건 알아도 없으면 죽죠. 이거 뺏기면 아마.. 폭탄 맞은 것 같은 충격일걸요?” (아동7)

2) 음란물을 체험하며 나타나는 아이들의 행동 변화

가. 음란물을 본 아이들의 말이나 행동이 변화됨

참여자들은 음란물을 많이 본 아이들이 이상하게 변해가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변해가는 것을 모른다고 하였다. 이들은 남자아이들이 뜻 모를 야한 말을 많이 사용하고, 어제 본 동영상을 얘기하며 자기네들끼리 눈짓하며 웃는 다고 하였다. 이들은 음란물을 많이 보는 아이들의 공부

는 다 꿩이라고 표현하면서, 여자 아이들의 속옷 비치는 사진을 찍고 신음 소리를 내며 좋아하거나, 야한 사진을 필통과 같은 곳에 붙이고 다니는 아이들의 행동을 자신들을 포함해 반의 대부분 아이들이 역겨워서 무시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음란물을 접하는 남학생들은 야동으로 인해 언어적 표현이나 눈짓, 웃음 등의 행동이 달라지지만, 여학생들은 옷차림이 변하거나 화장을 하는 등 외모가 변한다고 하였다.

“애들끼리 야한 이야기나 이상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남자애들끼리 막 ‘니 sex가 뭐지?’ 이러면 여자애들은 ‘뭘 말임?’ 이러면서 ‘하지마라 그만 말’ 이래요. 그러면서 저저들끼리 눈짓하면서 막 웃고. 직감적으로 자기들끼리는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동1)

“우리 반에 반바지 완전 짧은 거 있잖아요. 팬티가 보이고. 그렇게 야한 거 입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팔 이만한 거 뚫린 거도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막 입고. 그럼 이렇게 하면 싹 다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티트를 개가 막 바르는데 너무 많이 발라가지구요 그게 발색되가지구요 안 바르면은 너무 아파보여요” (아동2)

나. 아이들이 음란물에서 본 대로 행동하는 것을 경험함

참여자들은 음란물을 본 아이들이 자신들이 본 대로 그런 행동[유사 성행위]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은 기분이 나쁘거나 더럽다고 표현하였다. 이들은 5학년 남학생들끼리 학교에서 대 놓고 뽀뽀를 하고, 6학년 남학생들은 한꺼번에 여러 명이 화장실에서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는데, 이러한 행동이 너무 더럽고 짜증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행동을 반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참여자들을 비롯하여 그 반의 다른 아이들도, 음란물을 보지 않은 아이들까지도, 자연스럽게 음란물의 영향권에 노출되어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동성애 형태의 성행위에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대상이 됐던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우를 ‘당했다’고 표현하면서 기분이 더러웠다고 하였다.

“남학생이 몸을 의자모양으로 만들어서 벽에 기대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여자애들을 잡아서 자기 무릎에 앉히려려고 당겨요. 어쩔 때는 의자처럼 앉아서 여학생 머리를 자기 거기에 당겨서 갖다 대는 애도 있어요. 남자 애한테 잘 보이고 싶은 여자 애면 거기에 자기 얼굴을 갖다 대요. 이상하죠? 저는 그 까진 안 갔는데, 다 그래요.” (아동2)

또한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게임을 통해 분출하기도 하였다. 게임의 형식으로 이성친구들과 신체적 접촉을 하고 오도록 명령하기도 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바지를 벗으라고 명령하기도 하였다. 남학생들끼리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가장 높은 층 계단에 올라가 팬티벗기기 게임을 한다고 하였다.

“남자애인 경우에는 쪽팔려 게임하면서 속옷 보고오기 같은 거를 시켜요. 이제는 쪽팔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변태적인, 변태되기 게임으로 변했어요. 막 그런 동영상을 보니까, 그걸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가죠. 게임도 그렇게 신체 쪽으로 막...” (아동9)

3. 음란물 체험 후 나타나는 현상

세 번째 범주는 음란물을 체험 한 아동들의 현 삶과 미래에 대한 생각에 해당된다. 이 범주에는 음란물로 인해 변해가는 아이들을 자신들만의 비밀로 공유한 체, 자신들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른들과의 접촉점이 끊어져, 음란물로 인한 아동들만의 비밀스런 결합이 이루어져 있음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음란물로 인해 미래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에서 벗어나갈 수 있도록 자신들을 도와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범주를 ‘음란물 체험 후 나타나는 현상’으로 명명하였다.

1) 음란물로 인해 아동들만의 비밀스런 결합이 형성됨

가. 음란물 체험을 자신들만의 비밀로 공유함

참여자들은 모두 주위 아이들의 이러한 행동을 교사나 부모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을 보거나, 혹은 그런 행동으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괴로워서 교사나 부모, 때로는 경찰서에까지 신고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참았다고 하였다. 이는 그런 걸 당했다는 것이 창피해서 말을 못했다고 하였고, 이렇게 변해가는 아이들 때문에 자신들까지 쓰레기 취급당할까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나 교사가 참여자를 포함한 아동들의 음란물 피해를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이 보는 애들은 자기가 변해가는 줄도 몰라요. 남이 볼 때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말하는 자체가 남자애들을 똥으로 만드는 거 같아요. 이런 걸 말하면 남자애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저는 남자애들이 무시당하고, 여자애들이 이상하게 보고 그럼 쓰레기가 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일러주는 것도 창피해서 그냥 있어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말 안 해요” (아동10)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어른들은 우리가 뭐하는지 누구지 알지도 못하는데.” (아동1)

나. 어른들에 대한 불신으로 어른들과의 접촉점이 끊어짐

참여자들은 어른들에 대한 불신을 호소하였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다 안 그런 줄 알지만 대다수 아이들은 음란물을 다 보고 있다고 하면서, 비록 유튜브에 19세 이하 금지가 걸려 있어

도 얼마든지 접속해서 보는 방법을 알고 있어 자신들이 어른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자신들은 학교에서 음란물을 보고 여러 이상한 행동까지 다 하고 있지만, 선생님은 이러한 자신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신들과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다고 하였다. 선생님은 우리와 세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자꾸 옛날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고, 그래서 고민을 털어놓지 못한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보던 시간에 실시하는 성교육을 통해 야한 동영상을 보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지만 이미 다 보고 다 적응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과 맞지 않는 성교육은 듣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른이 돈 벌기 위해 만들어놓은 유해사이트에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가 음란물을 보게 되었다며, 자신들이 이렇게 된 데는 어른의 탓이 크다고 하며 속상해하기도 하였다.

“부모님들 생각은 우리 애는 공부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니까 야동 같은 거는 꿈도 안 꾸다 막 다른 애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애도 다 똑같아요. 자기들만 모르는 거죠.” (아동10)

“보던 시간에, 야한 이야기 그런 거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애들은 절대 안 듣죠. 막 애들이 음음하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눈짓하고, 보지마라해도 애들은 이미 다 봤거든요. 그러니 교육을 해도 이미 야동에 적응이 되어 버려서 샘 말 안 들리죠. 선생님이 아무리 그래도 애들은 여전히 동영상 볼 거예요.” (아동9)

2) 음란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함

가. 음란물로 인해 미래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됨

참여자들은 음란물로 인해 변화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점점 이상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1학년 동생들도 음란물을 보게 되어 지금의 6학년처럼 될 것이라 걱정하기도 하였으며, 차라리 홈스쿨을 해서 혼자 있으면 학교에서 야동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가 없는 것이 더 낫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앞으로 점점 청소년 성범죄가 늘어날 것을 염려하면서, 앞으로 점점 세상이 무서워질 것이라고 하면서, 음란물을 보는 애들이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점점 더 야해지면서 성추행이나 성폭행 범죄가 일어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여학생들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를 찍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는 길 다니기도 무서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차라리 홈스쿨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홈스쿨해서 공부만 하면 애들이 야동 같은 거 말하는 거도 모를거고. 차라리 모범생이 많아 질 거 같아요. 완전 애들이 선생님한테는 ‘니는 그래라 되게 웃기네’ 이라고는 지들은 야동이야기 하고 있고 이게 학교니까. 어차피 학교에서 애들 집중도 안 할거고,

선생님이 혼내는 시간이 대부분이거든요, 학교 안가도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집에서든 자기주도 학습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굳이 학교를 왜 가겠어요.” (아동5)

“청소년 범죄가 항상 이런 야동 보면서 일어난다 하잖아요.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아동10)

나. 음란물에 대한 규제나 교육이 필요함

참여자들은 음란물로 인한 자신들의 현실과 미래가 어둡기에 자신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주는 법을 강화하거나, 유해사이트를 아예 없애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음란물을 보면 안 된다는 교육은 5학년 때 실시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어 3~4학년에 미리 받게 해주면 좋겠다고 하였고, 음란물로 인해 더 이상 자신이 망쳐지고 싶지 않아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다.

“야동 사이트 같은 거는 어른들이 돈 벌려고 만든 거잖아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할 것 같아요.” (아동7)

“처음부터 안 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 더 이상 망쳐지고 싶지 않아요.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제발 이 사실을 알려서 아이들을 좀 도와주세요.” (아동8)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음란물 체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아동 10명을 심층 면담하였고,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질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또래친구나 학교 선배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에 접촉하고 있었으며, 부모님이 안 계실 때나 혼자 있을 때, 혹은 부모님의 눈을 피해 친구들과 함께 음란물을 접하고 있었다. 이는 10대 청소년이 성적인 가치관을 수립함에 있어서 부모보다 또래나 인터넷, 대중매체로부터 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김정남, 우해자, 2001; 김혜자, 심미정, 2014; 이창훈, 김원기, 2015; 차남현 외, 2007; Braun-Courville & Rojas, 2009; Cooper et al., 2001; Peter & Valkenburg, 2006, 2009)를 지지하면서, 아동들이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 잘못된 성의식을 얻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의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무지와 내 자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맹목적 믿음이 자녀의 음란물 접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김혜자, 심

미정, 2014)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참여자들은 음란물을 보기 위해 흔적이 남지 않는 스마트 폰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스마트 폰의 기능적 특성 상 동영상이나 텍스트 파일을 쉽게 다운받아 재생하거나 무선으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어, 스마트 폰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음란물을 쉽고 빠르게 퍼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스마트 폰과 같이 개인화된 미디어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이용이 용이해졌고, 접촉 시기마저 단축되어 점차 통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노안영 외, 2012; 오은선, 최진아, 2015; 이창훈, 김원기, 2015). 따라서 초등학생의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 사용에 따른 음란물 접촉에 대해 학교 및 가정에서의 지도 및 감독이 시급하다.

본 연구 결과, 남학생 참여자들은 야한 동영상을 주로 보는 반면, 여학생 참여자들은 인터넷 소설에 심취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여학생 사이에서는 이른바 인터넷 소설을 읽지 않는 이를 찾기란 어렵다는 보고(동아일보, 2012.08.14.)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성친구가 없어도 인터넷 소설을 읽으며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인터넷 소설이 이성교제에 대한 정제되지 않은 환상을 만드는데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과 이성교제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의식을 가지도록 함에 있어서 음란물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비록 단 한 번 음란물을 봤다 할지라도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서 또 보고 싶고, 계속 보면 더 보고 싶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아동이 음란물을 다시 접촉하려고 시도하게 된다는 점(손미희, 2009)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절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의 음란물 접촉은 연속적인 음란물 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의도적인 접촉에서 의도적인 접촉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는 비의도적 음란물 접촉이 많아지게 되면 의도적인 접촉 성향을 높여 결국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노안영 외, 2013)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음란물에 접촉하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음란물을 이용하게 되고, 의도적이지 않았다 해도 결국 인터넷에서 의도적인 접촉을 하게 할 개연성을 높임으로써 중독적 습관이 형성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비의도적인 음란물 노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비의도적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와 규제 방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음란물을 이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어 의도적인 접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음란물에서 본 대로 따라하고 싶은 욕구와 충동을 경험하며, 때로는 이를 실현하고 있었다. 즉, 초등학생에게도 성적 욕구가 생기며, 조절력이 떨어지고 성적 가치관이 부족한 이들은 음란물로 인해 생긴 성적인 욕구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음란물에서 본 대로 따라하려 하거나, 이미 따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정남, 우해자, 2001; 차남현 외, 2007; Cooper et al., 2001; Peter & Valkenburg, 2006). 이는 성폭력이나 성추행 충동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이 고

등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결과(행정안전부, 2012)와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은 일종의 놀이처럼 음란 행위를 따라하면서 그것이 범죄인지 모르고 있다는 보고(양소정, 2010) 및 초등학생이 음란물을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고들(이슈타임, 2015.10.17.; MBC NEWS, 2014.8.25.)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수립하고, 조절력과 판단력을 길러 건강한 방법으로 욕구와 충동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주위 아이들이 음란물에 접촉함으로써 나타내는 행동 변화를 통해 간접적인 음란물 접촉 피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여러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거나(뉴스포스트, 2008.05.09.), 음란물 이용은 음란채팅, 야한문자나 사진 전송, 몰래카메라 촬영 등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행정안전부, 2012)를 지지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음란물을 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주위 아동의 행동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음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이를 교사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 내 학생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음란물 접촉 피해를 교사나 학부모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금도 어른들 모르게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음란물에 접촉하거나 간접적 노출을 경험하고 있을 이들의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가늠하게 한다. 따라서 초등학생이 음란물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러한 경험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음란물로 인해 자신들만의 비밀스런 결합 속에서 부정적인 미래관이 형성되어, 음란물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들은 음란물로 인한 아이들의 행동 변화를 외부로 알리지 않으면서, 학교의 교사들이나 부모, 세상의 어른들 모두 자신들의 실정을 잘 모르고 있음을 호소하였고, 이 같은 음란물로 인해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가거나 성범죄 등이 늘어날 것을 염려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나 교사는 아이들의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음란물에 대한 교사나 학교의 제재 및 교육 역시 이들의 현 상황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성교육이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성지식 전달 형태로 진행되어 학생들 대다수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2005)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강력한 중독성을 지닌 음란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어린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규제를 제공하거나, 법을 강화하고, 이들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이른 시기에 음란물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에서의 도움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학교가 자연스럽게 음란물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되어 버렸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보고, 친구들을 통해 음란물을 접하며, 자신은 음란물을 보지 않아도 음란물에서 본 대로 일탈 행동을 하는 친구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한 아동이 접촉하기 시작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 반의 대다수 아동이 보게 되면서 그 접촉 시간도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학교나 교사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은 교사를 다른 세계 사람으로 여기는 등, 음란물에 한해서만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큰 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음란물 접촉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음란물 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변 사람들이 음란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고 인식할 때 음란물 중독 성향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고 보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관대함이 음란물에 더욱 더 접촉하게 만듦으로써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다(노안영 외, 2013; 이성식, 2003). 이는 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이 음란물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아동이 자신들의 음란물 경험을 교사나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숨기는 데에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이라는 것이 은밀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아동의 음란물 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가정이 연계하여 이들에게 음란물 접촉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성과 음란물 등에 대한 대화나 토론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학교는 음란물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습의 장이 되어 이들에게 올바른 성의식과 태도를 갖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음란물은 아동에게 있어서 단 한 번만 봐도 빠져들게 할 만큼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조절력이나 판단력이 성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에게 있어 음란물은 마약과도 같은 힘을 갖고 있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잡을 수 없이 빠져들며 그러한 현상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음란물이 일상의 재미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 본 음란물이 주된 대화거리가 되는가 하면, 인터넷 소설은 매우 불건전한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 사이에서 소문과 추천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음란물은 돈을 벌기 위한 만들어진 상품으로 구매자의 성적 환상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본질적으로 자극적인 장면에만 치중하여, 성적 환상만 주고 성적 행동에 대한 결과나 건강한 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L'Engle, Brown, & Kenneavy, 2006). 따라서 아동이 음란물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음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르쳐줌으로써 음란물로 인해 왜곡된 성지식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이른 시기에 사춘기를 경험하므로 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을 수 있어(오은선, 최진아, 2015), 성차에 근거한 성교육 및 성 상담

이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세상에는 인터넷과 스마트 폰이 주인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나와야 함을 알고 있지만, 빠져 나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저히 나올 수 없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스마트 폰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 편리성을 가진 채 그 기능은 날로 발전하고 있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형태의 음란물을 만들어내며 아동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한 예로, 2014년 자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직접 촬영해서 SNS에 올린 미성년자 43명을 경찰이 적발하였는데, 이 중 33명이 초등학교생이었으며, 그 중에는 초등학교 2학년생도 2명이나 있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서 접한 음란물을 모방해 유튜브에 게시했다 하여, 제아무리 19금이라 할지라도 스마트 기기 무장한 아이들의 접근을 막는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머니투데이, 2014.11.02.). 따라서 이들이 스마트 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에는 음란물과 유해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등 이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음란물 유포자의 처벌, 사이트 운영자의 음란물 수시 점검 및 삭제, 유해정보 차단서비스 안내 의무화 등의 방안을 통해 사업자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요구된다(행정안전부, 2012)

넷째, 아동의 음란물 피해를 지속하게 만드는 데에는 부모와 학교를 비롯하여 사회와 국가의 역할도 배제할 수 없다. 가정에서 아무리 통제를 한다고 해도 학교에서 무방비상태로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는 오히려 다른 아이들은 다 봐도 자신의 자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맹목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김혜자, 심미정, 2014),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가정에서의 성교육 여부는 아동의 성태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이 자녀의 성지식과 성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큰 효과를 줄 수 있다(이주희, 유형근, 조용선, 2011; Weber et al., 2012; Wilson, Dalberth, Koo, & Gard, 2010). 부모는 스마트 폰을 통해 초등학교생 자녀들조차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자녀에게 스마트 폰을 주는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줘야 한다면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에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해서 이용시간, 방문사이트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자녀가 음란물에 접촉한 사실을 알았다면 음란물 내용은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성교육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학교와 가정이 연계되어 통합적인 전략을 가지고 실시될 때 보다 효과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이주희 외, 2011).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는 학교나 가정에서 보수적이고 전 근대적인 성교육 방법과 내용만을 고수하여 무조건적으로 음란물 접촉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동이 올바른 성의식과 가치관을 확립하여 스스로 보아야 하는 것과 보지 않아야 할 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며(차남현 외, 2007), 건전한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의 성문제는 아동의 행동 자체 문제라기보다 성인 세계의 음란, 퇴폐 문화, 사회 구조의 문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광범위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들에게는 음란물 공해 속에서 자신 있게 맞설 수 있는 성숙함을 길러줌과 동시에, 부모와 교사 및 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이러한 아동의 현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가정, 학교, 사회, 국가가 함께 협력하여 무차별적인 대중매체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 방법이 갖는 특징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음란물 체험으로 제한된다. 후속 연구를 통해 다른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시행하거나, 또 다른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탐구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민감한 사항으로 응답에 한계가 있었으며, 음란물을 보는 자신의 행동 원인을 주로 외부의 탓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음란물 체험 이후에도 좀 더 주도적으로 음란물 접촉을 조절해보려는 내부적인 시도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다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음란물로 인한 부정적인 면에 더해 긍정적인 가능성을 찾아 이를 다뤄주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의 기능은 점차 더 발달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성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의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 사회 아동 및 청소년의 음란물 피해는 날로 더해질 수 있다. 음란물을 경험하는 아동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독특하고 개별적인 경험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아동의 음란물 체험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우리 사회의 많은 학생들이 어린 시기부터 성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성립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 2030-비행·유해 환경 분야**.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혜, 이화자, 정향미(2000). 남자 중학생의 컴퓨터음란물 접촉자와 비접촉자간의 성지식과 태도의 차이. **아동간호학회지**, 7(1), 62-73.
- 김은실, 김귀정, 김봉환(2011). 고등학생들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과 성범죄와의 관계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6), 8-17.
- 김정남, 우해자(2001). 일개지역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컴퓨터 음란물 접촉 실태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1), 150-167.
- 김혜자, 심미정(2014).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따른 성의식과 이성교제태도. **디지털융복합연구**, 12(5), 367-376.
- 노안영, 박동진, 권명순(2013). 인터넷 음란물 중독성향과 이용의도: 계획행동모델의 적용. **한국언론학회**, 57(4), 168-191.
- 백경신, 정승교(2006). 일 지역 여고생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실태, 성지식, 성태도 및 관련 요인 조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7(3), 376-386
- 손미희(2009). **초등학생의 음란물 접촉 경험이 성의식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 심재웅(2010). 청소년들의 음란물 노출 시기가 음란물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미디어, 젠더 & 문화**, 16, 75-104.
-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2005). **2010.4.10. 청소년 성문화 연구조사**. www.ahacenter.kr.
- 양순옥, 김신정(2004).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분석. **아동간호학회지**, 10(4), 431-441.
- 양소정(2010).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2(4), 247-284.
- 오은선, 최진아(2015). 인터넷 음란물 노출이 초등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3), 93-113.
- 이병환, 손미희(2009). 초등학생의 음란물 접촉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 17(2), 209-226.
- 이성식(2003).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실태와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14(4), 61-114.
- 이정윤, 이명화(2003). 음란물을 자주 접촉하는 청소년의 성 및 심리사회적 특성. **청소년상담연**

구, 11(1), 32-41.

이주희, 유형근, 조용선(2011). 초등학교 고학년의 성의식 향상을 위한 부모연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19(2), 47-64.

이창훈, 김원기(2015). 청소년의 웹하드를 활용한 음란물 유통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강압이론 및 사회학습이론을 토대로 한 구조방정식 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12(3), 91-118.

조주영, 김영희(2004). 영상매체 성매체지와 청소년의 성반응-성태도와 성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2(3), 159-178

차남현, 왕명자, 유경희, 김정아(2007).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별 음란물 접촉실태와 성 갈등에 대한 연구. **동서간호학연구지**, 13(2), 107-117.

최명일(2009).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음란물 노출이 실제 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3(2), 49-69.

최정임, 정동훈(2014). 스마트 폰을 통한 청소년의 성 관련 콘텐츠 노출 원인 분석.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14(4), 445-455.

최창조, 한재희(2010).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수줍음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1(1), 207-224.

행정안전부(2012). **음란물을 본 청소년 5% “성추행·성폭행 충동 느껴” -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 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뉴스포스트스(2008.05.09.). **대낮에 학교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대구 초등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전말**. <http://www.newspost.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no=1045>

동아일보(2012.08.14.). **스마트폰 ‘인터넷 소설’에 빠진 여학생들**.

<http://news.donga.com/View?gid=48599302&date=20120813>

머니투데이(2014.11.02.). **‘몸캠’찍는 초등학생 “야동 안 보면 잠이 안 와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03117471934659&vbg=column&code=column286>

이슈타임(2015.10.17.). **초등학교 4학년, 무려 13명 친구들 성추행·폭행**.

<http://www.isstime.co.kr/view/?nid=2015101710203612073>

MBC NEWS(2014.08.25.).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1/3515735_17924.html

Braun-Courville, D. K., & Rojas, M. (2009).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web sites and adolescent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5(2), 156-162.

Cooper, A., Griffin-Shelley, E., Delmonico, D. L., & Mathy, R. M. (2001). Online sexual problems: Assessment and predictive variables.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8(3-4), 267-285.

L'Engle, K. L., Brown, J. D., & Kenneavy, K. (2006). The mass media are an important context

- for adolescents' sexual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8(3), 186-192.
- Lo, V. H., & Wei, R. (2005).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Taiwanese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49(3), 221-237.
- Morrison, T. G., Bearden, A., Harriman, R., Morrison, M., & Ellis, S. (2004). Correlates of exposure to sexuality explicit material among Canadian post-secondary students.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13(3/4), 143-156.
- Peter, J., & Valkenburg, P. M. (2006). Adolescent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and recreational attitudes toward sex. *Journal of Communication*, 56(4), 639-660.
- Peter, J., & Valkenburg, P. M. (2009). Adolescent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internet material and notions of women as sex objects: Assessing causality and underlying processes. *Journal of Communication*, 59(3), 407-433.
- To, S., Ngai, S. S., & Kan, S. I. (2012). Direct and mediating effects of accessing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s on Hong Kong adolescents' attitude, knowledge, and behavior relating to sex.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12), 2156-2163.
- Weber, M., Quiring, O., & Daschmann, G. (2012). Peers, parents and pornography: Exploring adolescent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material and its developmental correlates. *Sexuality & Culture*, 16(4), 408-427
- Wei, R., Lo, V. H., & Wu, H. (2010). Internet pornography and teen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China Media Research*, 6(3), 66-75.
- Wilson, E. K., Dalberth, B. T., Koo, H. P., & Gard, J. C. (2010). Parents' perspectives on talking to preteenage children about sex. *Perspective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42(1), 56-63.
- Ybarra, M. L., & Mitchell, K. J. (2005).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national survey.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8(5), 473-486.

* 논문접수 2016년 5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6월 9일 / 2차 심사 2016년 11월 10일 / 게재승인 2016년 12월 9일

* 남영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부산 명장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 E-mail: namios@hanmail.net

* 송연주: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부산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심리 및 상담심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직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songyj@bufs.ac.kr

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f Experiences with Sexually Explicit Material in 6th Grade Students

Nam, Yeong Ok*

Song, Yeon 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with sexually explicit material, making an in-depth interview of 6th grade students, and to provide them with strategies to prevent them from watching this material.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0 selected 6th grade students. After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gather data, a qualitative analysis was made by apply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y had experiences with sexually explicit material either with friends or privately at home. Most students used cell phone rather than a computer, and there were different types of material preference between boys and girls. Once they had a chance to experience the material, they developed a habit of watching the material. Although they were willing to stop watching this material, they had trouble with breaking their habits. When students witnessed sexual behavior of their classmates related to this material, they have kept it secret from parents and teachers. This suggests that further legislation or regulations to restrict sexually explicit material is needed. The findings and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re then discussed.

Key words: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xually explicit material, phenomenological method, a qualitative study

* Teacher, Mung-Jang Elementary School

** Assistant Professor,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